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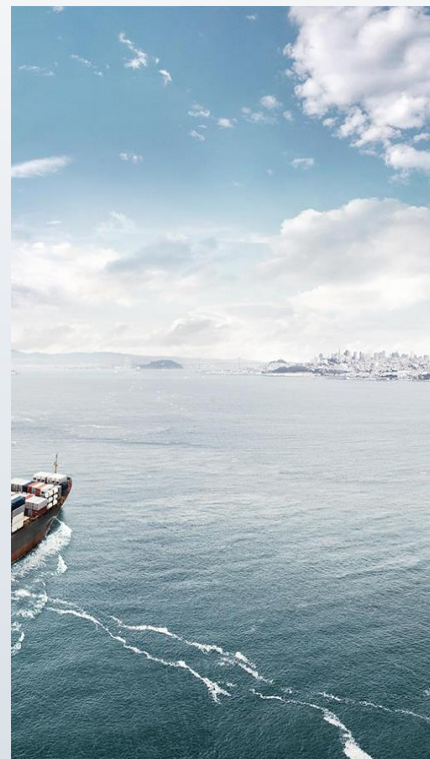


STL MARKET REPORT

Weekly Focus No.300

Updated May 26, 2020

The STL Market Report covers major issues affecting the world S&P market and provides an outlook for the market developments. The report provides a detailed analysis of key developments impacting S&P market trends.



Contents

Issue & Trend	1
Bulk Carrier	6
- BC Sales Report	
Tankers	10
- Tanker & Container Sales Report	
Demolition	14
Key Indicators	17
STL News & Information	19
Contact Information	21

** 본 자료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내, 외신 자료와 언론보도를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법적책임 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I . ISSUE & TREND

1. LNG 프로젝트 가시권, 조선사 하반기 '숨통'

코로나 19 사태로 조선 시장이 급격히 둔화됐지만 조선사들은 주요 프로젝트가 발주되면 하반기에는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발주가 진행되고 있는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을 비롯해 미뤄졌던 초대형 원유 운반선, 초대형 컨테이너선 등의 수요도 곧 회복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사들은 코로나 19와 유가 폭락 등의 불확실성이 해소 기미를 보이면 하반기부터는 발주가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진단했다.

삼성중공업은 1분기 보고서를 통해 "상반기 이후 세계 각국의 본격적인 경기부양책이 시작되고, 코로나 19 확산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경제활동이 회복되면서 발주물량이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장 주목하는 선종은 LNG 운반선이다. 신규 LNG 플랜트 물량이 2023년까지 1억 T 이상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관련 발주가 꾸준히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다.

최대 120척 규모의 '잭팟'이 기대되는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이미 지난달부터 시작됐고, 러시아발 쇠빙 LNG 선도 조만간 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인 카타르페트로리엄(QP)은 중국 후동중화와 배 건조 공간을 예약하는 DOA(DEED OF AGREEMENT) 계약을 지난달 체결했다. 나머지 물량 건조를 위해 조만간 한국 조선사와도 접촉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재 17만 4000㎡급 LNG 운반선 가격은 척당 1억 8600만 달러로, 최소 단위인 60척만 수주해도 13조원에 달한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모두 입찰에 참여했으며 일부 물량은 연내 본계약이 점쳐진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업체 노바텍이 발주하는 쇠빙 LNG 선 10척 주인도 곧 가려질 전망이다. 쇠빙 LNG 선은 얼음을 깨며 운항하는 LNG 선으로 일반 LNG 선 보다 선가가 1.5배 이상 높다.

국내에선 '빅 3' 모두 입찰에 참여한 상태로, 외신 등은 중국 후동중화와 대우조선이 유력하다고 보도했다.

원유 운반선 역시 노후선 비중이 높아 교체 발주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I . ISSUE & TREND

대우조선은 1 분기 보고서를 통해 "초대형 원유 운반선은 2020 년 환경 규제에 따른 저유황유 사용 증가 및 중국, 동남아 중심의 오일 수요 증가, 디젤유 생산 증에 따른 수입국 변화가 톤마일을 증가시켜 신조 발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단했다.

컨테이너선 역시 선대 확보 차원에서 해운사들을 중심으로 발주가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해양 시장은 유가 약세로 2 분기까지는 쉽지 않지만 일부 물량에 대해서는 연내 발주 가능성을 기대했다.

한편 조선·해운 시황기관인 클락슨리서치는 올해 선박 발주 규모를 756 척으로 전망했다. 지난해(987 척) 보다 23.4% 줄어든 수치다.

다만 LNG 선을 중심으로 한 고부가가치선 수요는 올해 꾸준할 것으로 봤다. LNG 운반선 발주 50 척, VLCC 와 컨테이너선(1 만 5000TEU 급 이상) 각각 25 척으로, 국내 '빅 3'가 모두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

2. 해운업계, 유조선 운임 급등·급락 장세에 긴장

전 세계 해운업계가 유조선 운임이 급등과 급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긴장하고 있다.

올해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으로 전 세계 석유수요가 크게 줄어 유조선 운임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으나 유조선 운임지수(WS)가 매달 급등과 급락을 반복해 해운업계 예상을 번번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운업체들의 선박 운용 계획도 무용지물이 될 처지에 놓였다.

WS 는 유조선 운임을 대변하는 수치다. 일반적으로 WS 가 상승하면 해운사는 직접 유조선을 운영해 유조선 운임 수익을 챙기고 WS 가 하락하면 선박을 직접 운용하지 않고 다른 업체에 빌려주는 계약을 체결해 '용선 수익(선박을 빌려주는 데 따른 수익)'을 챙길 수 있다.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코로나 19 로 전세계 공장 가동이 중단되고 석유 소비도 줄었기 때문에 대부분 산업이 둔화돼 석유 수요가 줄면 WS 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 19 가 유행하기 전 지난해 12 월 초 WS 는 90 포인트를 기록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가 유행한 후 1 월 초 130 포인트, 2 월 초 52 포인트, 3 월 초 46 포인트, 4 월 초 165 포인트 그리고 5 월 초에는 70 포인트를 기록하는 등 수치가 급등과 급락이 이어지는 양상이다.

I . ISSUE & TREND

이에 대해 영국 조선·해운시황 분석업체 클락슨리서치는 지수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는 유조선이 '원유운반선' 역할을 수행하는 것 외에 '원유저장선'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WS 가 신뢰할 만한 값을 내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했다. 유조선이 원유저장선으로 사용되면 가용(사용 가능한) 선복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고 이는 WS 의 변동성 확대에도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클락슨리서치의 지난 1 월 말 발표에 따르면 유조선 운임시장에서 재화중량 20 만 T 이상 '초대형 원유운반선(VLCC)' 선박을 중심으로 '원유저장' 용도의 용선계약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월 전세계에서 VLCC 35 척의 용선계약이 체결됐으며 이 가운데 20 척이 원유저장 용도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신에 따르면 최근 해운 브로커와 선주들은 VLCC 를 이용한 원유 저장량이 이미 전세계적으로 8000 만 배럴(약 120 만 리터)에 이른 것으로 추정한다. 또한 VLCC 보다 작은 선종인 수에즈막스 급(재화중량 15 만 T)과 아프리카막스 급(재화중량 10 만 T) 유조선에는 이미 1000 만 배럴(약 15 만 리터) 이상 원유가 저장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원유를 싣고 운반한 유조선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화주가 해당지역에서 화물(원유) 하역을 진행하지 않아 대기하고 있는 선박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원유 공급 과잉으로 하역을 해봤자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다.

중국석유화공(시노펙·SINOPEC) 관계자는 "코로나 19 로 석유 수요가 급감해 육상 저장 탱크는 이미 포화상태이며 시노펙 선박 100 여 척도 유조선 저장 용도로 사용 중"이라고 22 일 밝혔다.

유조선을 다른 형태로 이용하는 회사가 많아질수록 가용 선복량 파악이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유조선 운임 변동은 꾸준히 반복될 전망이다.

3. 프랑스·독일 등 각국 해운선사, 코로나 19 여파 경영위기에 정부에 SOS

프랑스 해운선사 CMA CGM SA 등 각국의 해운선사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여파로 경영위기에 몰려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 . ISSUE & TREND

24 일(현지시각) 헬레닉십핑뉴스 등 해외운송전문매체들에 따르면 코로나 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지난 3 개월동안 예정된 모든 운송의 4 분의 1 이 취소되고 코로나 19 봉쇄조치로 소비자 수요가 급감하면서 각국의 해운선사들이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에 따라 세계 해운사들 일부는 코로나 19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 지원에 의존하는 상황이다. 많은 서구 해운선사들이 직접적인 정부지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프랑스 해운선사 CMA CGM 는 지난주 HSBC 와 소시에떼 제네랄(SOCIÉTÉ GÉNÉRALE) 및 BNP 파리바스 등 3 개은행으로부터 10 억 5000 유로의 신디케이트대출을 확보했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이 대출이 3 월에 승인된 프랑스의 3300 억 달러에 달하는 코로나 19 지원책의 일부이며 EU 규정에 위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CMA CGM 는 175 억 달러의 부채를 관리하는 데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CMA CGM 은 올해는 약 17 억 달러의 대출 및 채권 상황에 직면한 반면 해운량은 약 1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선주협회 VDR 은 독일 선주들이 선박 3 분의 1 을 잃은 지난 2018 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VDR 의 알프레드 하트만(ALFRED HARTMANN) 회장은 “선주들이 정부가 운영하는 KFW 개발은행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데 방해받지 않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독일 해운회사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KFW 개발은행의 지원프로그램에 따라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받지 않으면 파멸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VDR 에 따르면 회원들의 수익은 지난해부터 올해 3 월 4 월까지 최대 40%나 감소했으며 모든 종류의 선박용선율이 60%로 떨어져 많은 회사들이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다.

해운선박 소유주가 전세계 선박의 약 20%를 지배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정부가 여름 성수기에 크게 의존하는 100 척의 페리선단에 대해 3500 만 달러의 구제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I . ISSUE & TREND

4. '미래로 한발 더' 2020 세계해양포럼 준비 '착착'

오는 10월 27~29일 개최되는 '2020 제 14 회 세계해양포럼(WOF)'이 코로나 19의 여파에도 개최 준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WOF 기획위원회(위원장 김현겸 팬스타그룹 회장)는 지난 21일 부산 중구 팬스타그룹 사옥 4층 회의실에서 제 3차 기획위원회를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기획위원회는 이날 글로벌 해양환경 문제 해결을 위해 조선산업의 첨단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코로나 19 이후 해운항만과 수산산업이 어떤 형태로 진화할지 등 시대적 관심사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또 기초세션과 해운항만, 수산, 조선 분야의 정규세션과 해양도시 네트워크, 해양수산 ODA(공적원조), 해양인문학 등 특별세션 구성을 사실상 확정했다. 기획위원회는 이에 따라 기초세션과 산업별 세션에 맞는 국내외 연사를 초청하고, 소주제 선정 작업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김현겸 기획위원장은 "올해 세계해양포럼의 대주제가 '미래로 한발 더'"라면서 "코로나 19 이후 세계 해양경제의 변화에 주목하고, 해양 플라스틱과 같은 글로벌 해양환경 문제에도 대한민국이 선제적, 선도적 해결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해양산업의 미래에 초점을 두고 기획 역량을 모았다"고 말했다.

기획위원회는 앞서 지난 3월에 '2020 제 14 회 세계해양포럼' 대주제로 '미래로 한발 더'(ONE MORE STEP TOWARD SUSTAINABLE FUTURE OF OCEANS)를 확정한 바 있다.

기획위원회는 또 사무국이 대국민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선정한 작품을 '2020 제 14 회 세계해양포럼' 공식 포스터 디자인으로 사용하는데 동의하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세계해양포럼이 홍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사무국에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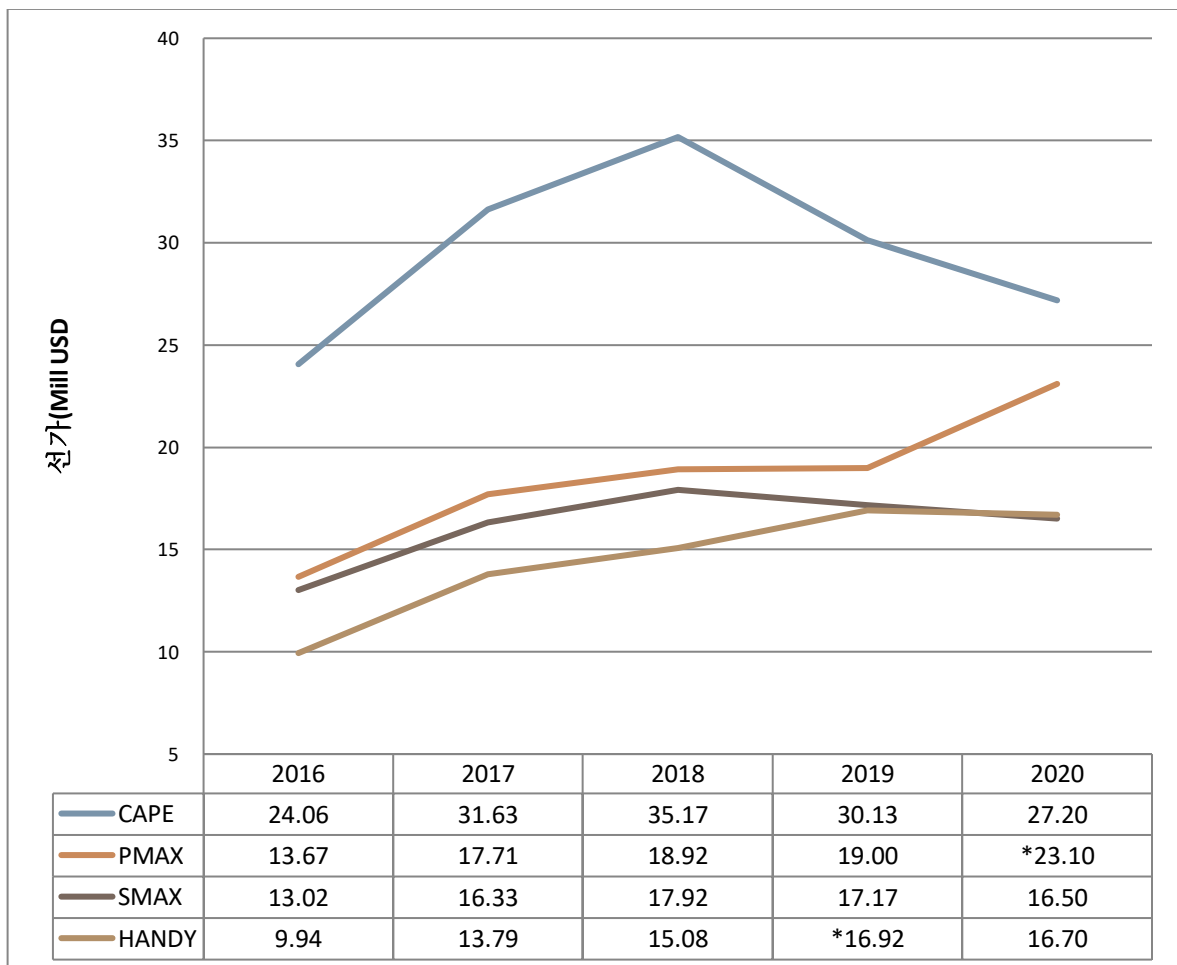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연평균 선가	2016	2017	2018	2019	2020
Capesize 180K	24.06	31.63	35.17	30.13	27.20
	-24.99%	31.43%	11.20%	-14.34%	-9.71%
Kamsarmax 82K	13.67	17.71	18.92	19.00	*23.10
*'19년까지는 76K 기준	-19.80%	29.57%	6.82%	0.42%	21.58%
Supramax 58K	13.02	16.33	17.92	17.17	16.50
	-16.91%	25.44%	9.69%	-4.20%	-3.88%
Handysize 37K	9.94	13.79	15.08	*16.92	16.70
*'18년까지는 32K 기준	-23.32%	38.78%	9.37%	12.18%	-1.28%

□ BC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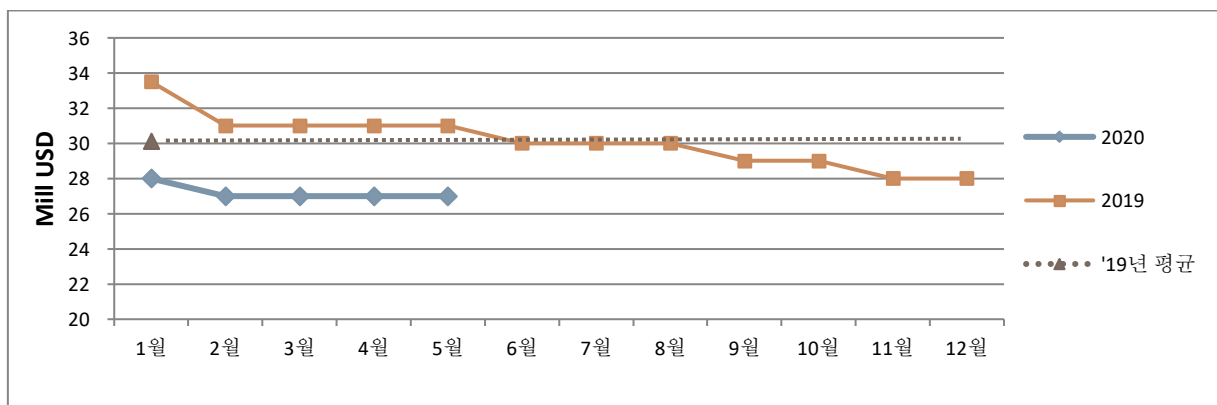




II . BULK CARRIER

구분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6 월	평균	
2020	CAPE 180K	선가	28.00	27.00	27.00	27.00	27.00		27.20
		전월대비	0.0%	-3.6%	0.0%	0.0%	0.0%		-
		전년대비	-16.4%	-12.9%	-12.9%	-12.9%	-12.9%		-9.7%
	KMAX 82K	선가	23.50	23.00	23.00	23.00	23.00		23.10
		전월대비	23.7%	-2.1%	0.0%	0.0%	0.0%		-
		전년대비	23.7%	21.1%	21.1%	21.1%	21.1%		21.6%
	SMAX 58K	선가	17.00	16.50	16.50	16.50	16.00		16.50
		전월대비	0.0%	-2.9%	0.0%	0.0%	-3.0%		-
		전년대비	-5.6%	-2.9%	-2.9%	-2.9%	-5.9%		-3.9%
HNDY 37K	선가	17.00	17.00	17.00	17.00	15.50		16.70	
	전월대비	3.0%	0.0%	0.0%	0.0%	-8.8%		-	
	전년대비	0.0%	0.0%	0.0%	0.0%	-8.8%		-1.3%	
2019	CAPE	33.50	31.00	31.00	31.00	31.00	30.00	30.13	
	PMAX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19.00	
	SMAX	18.00	17.00	17.00	17.00	17.00	17.00	17.17	
	HANDY (37k)	17.00	17.00	17.00	17.00	17.00	17.00	16.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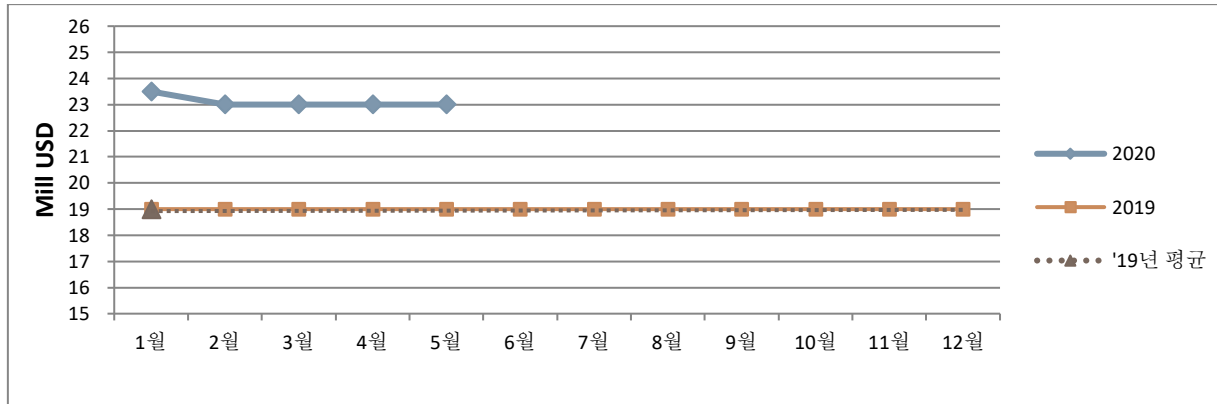
□ Ca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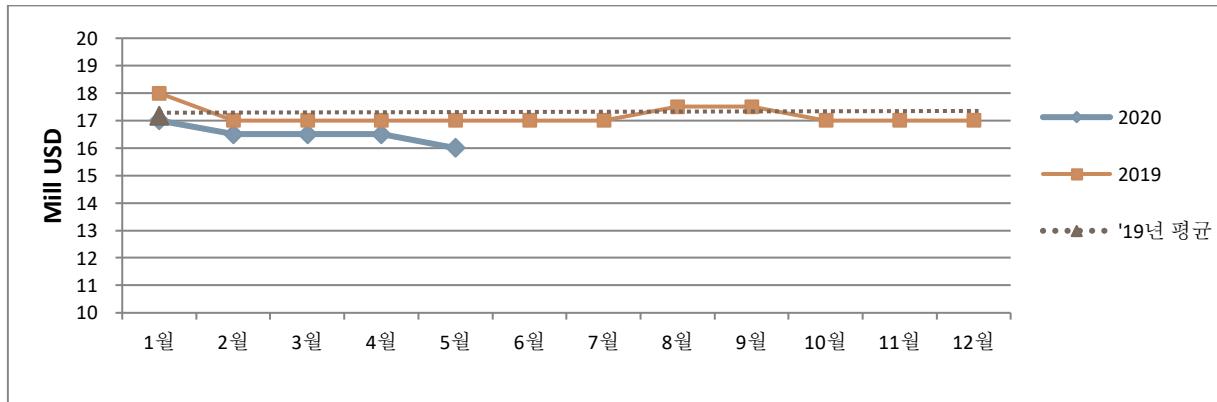


II. BULK CARRI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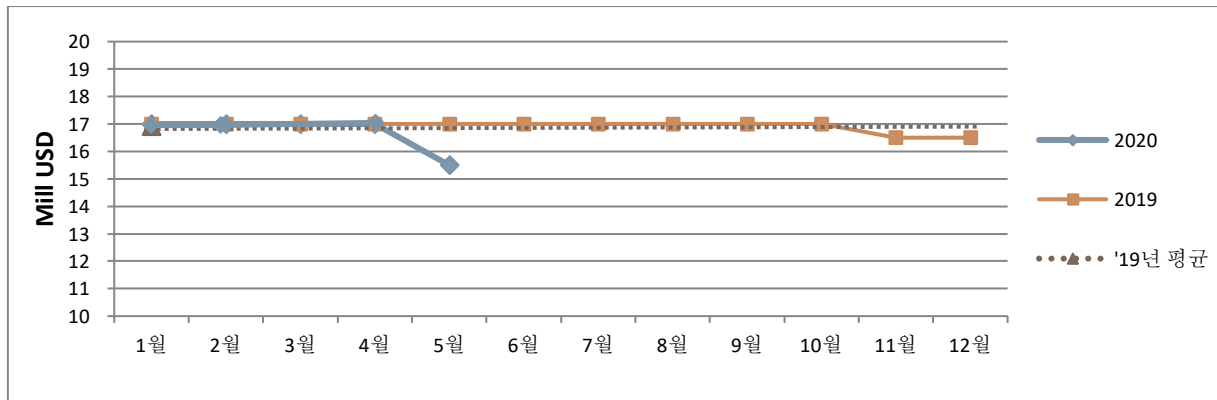
□ Kamsarmax *'19년까지는 76K 기준



□ Supramax



□ Handy



II . BULK CARRIER

III-1. Bulk Carrier Sales Report

TYPE	VESSEL	DWT	BLT	YARD	M/E	GEAR	PRICE	REMARKS
BC	CAPE BALTIC	177,536	2005	JAPAN	B&W		10.6	Undisclosed buyer
BC	LM SELENE	93,258	2009	CHINA	B&W		9.2- 9.3	Undisclosed buyer
BC	CAP FERRAT	75,595	2000	JAPAN	B&W		4.8- 4.9	Undisclosed buyer
BC	GULF TRADER	75,214	2002	JAPAN	B&W		5.2	Chinese buyer
BC	MEISTER	69,118	1997	JAPAN	SULZ		3.3	Chinese buyer
BC	SOUCO	63,500	2019	CHINA	B&W	C 4x35t	21.5	Greek buyer
BC	CYGNUS OCEAN	58,609	2013	CHINA	B&W	C 4x30.5t	12.5	Undisclosed buyer
BC	VEGA TAURUS	56,803	2010	CHINA	B&W	C 4x30t	6.6	Undisclosed buyer
BC	BOMAR OYSTER	56,548	2010	VIETNAM	WART	C 4x30t	6	Undisclosed buyer
BC	OCEAN PRELATE	52,300	2002	PHILIPPINES(JAP)	B&W	C 4x30t	4.05	Chinese buyer
BC	SEA ARROW	46,747	1998	JAPAN	SULZ	C 4x30t	3.5- 3.6	Chinese buyer
BC	EVOLUTION	24,306	1995	JAPAN	B&W	C 4x30t	1.34	Auction sale, Turkish buyer (Wickwar Shipp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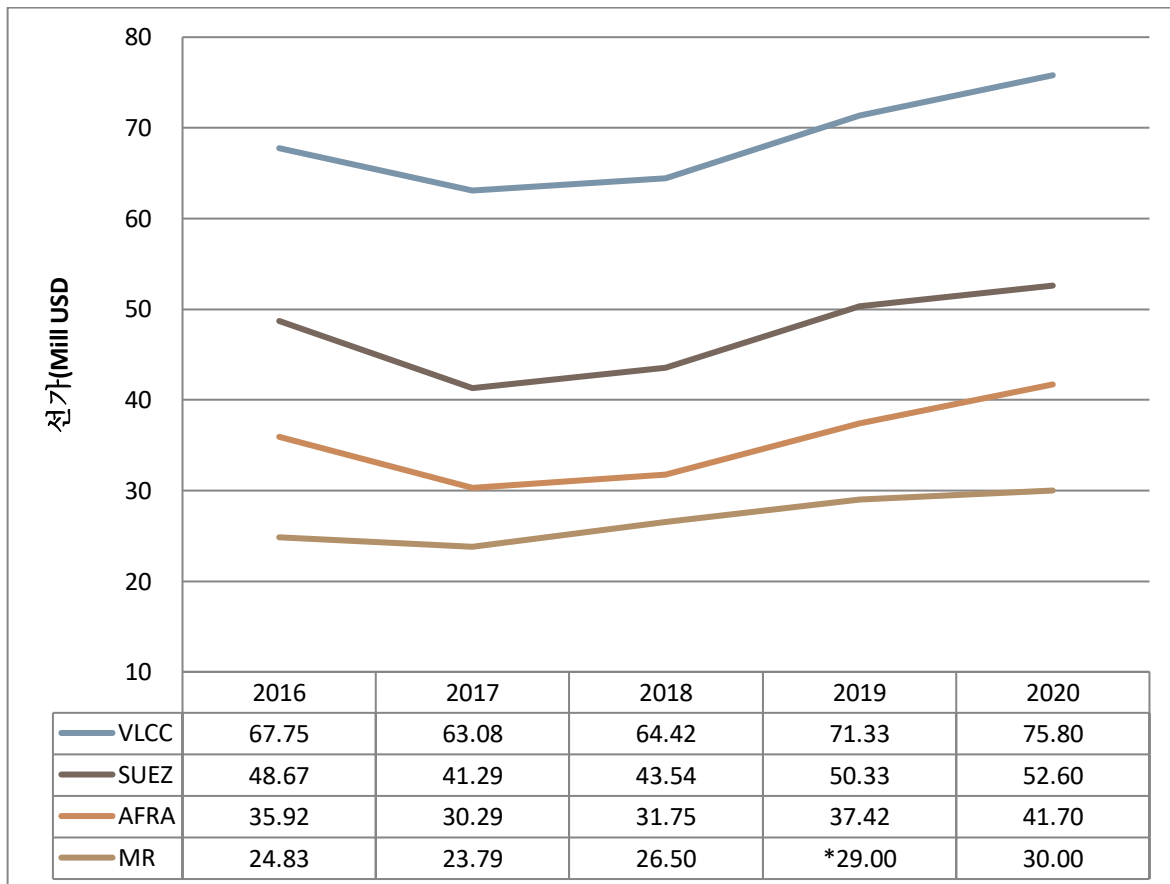
III. TANKER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전년도 대비,%)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VLCC 310K	67.75	63.08	64.42	71.33	75.80
	-16.15%	-6.89%	2.11%	10.73%	6.26%
Suezmax 160K	48.67	41.29	43.54	50.33	52.60
	-18.34%	-15.15%	5.45%	15.60%	4.50%
Aframax 105K	35.92	30.29	31.75	37.42	41.70
	-21.24%	-15.66%	4.81%	17.85%	11.45%
MR 51K <small>*18년까지는 49K 기준</small>	24.83	23.79	26.50	*29.00	30.00
	-10.35%	-4.19%	11.38%	9.43%	3.45%

□ TANKER 연평균 선가 - 선령 5 년 기준

◆선령 5 년기준, Million USD, 증감율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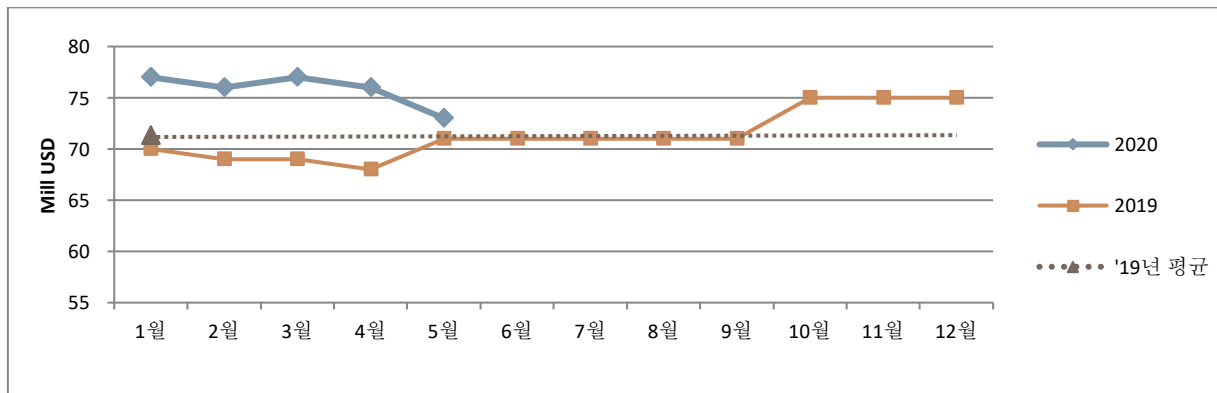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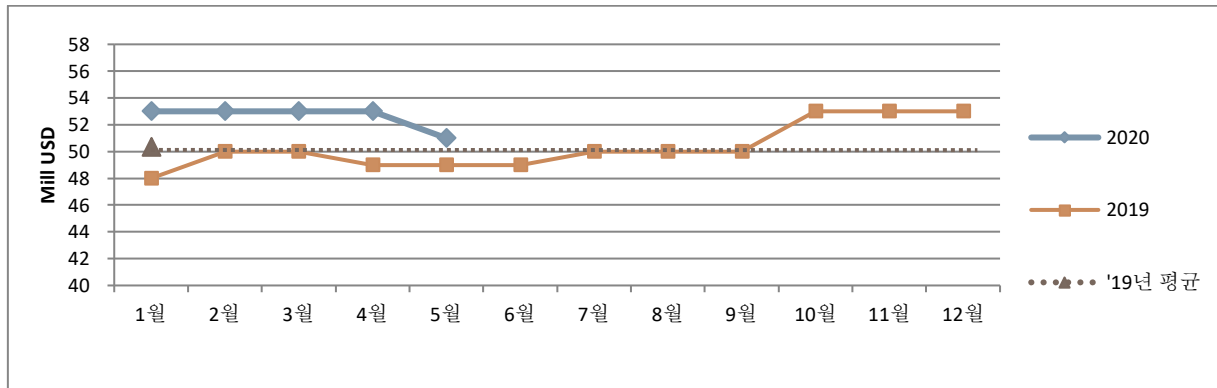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평균	
2020	VLCC 310K	선가	77.00	76.00	77.00	76.00	73.00		75.80
		전월대비	2.7%	-1.3%	1.3%	-1.3%	-3.9%		-
		전년대비	10.0%	10.1%	11.6%	11.8%	2.8%		6.3%
	SUEZ 160K	선가	53.00	53.00	53.00	53.00	51.00		52.60
		전월대비	0.0%	0.0%	0.0%	0.0%	-3.8%		-
		전년대비	10.4%	6.0%	6.0%	8.2%	4.1%		4.5%
	AFRA 105K	선가	41.00	42.50	42.50	42.50	40.00		41.70
		전월대비	0.0%	3.7%	0.0%	0.0%	-5.9%		-
		전년대비	17.1%	21.4%	21.4%	21.4%	14.3%		11.4%
	MR 51K	선가	30.00	31.00	31.00	30.00	28.00		30.00
		전월대비	0.0%	3.3%	0.0%	-3.2%	-6.7%		-
		전년대비	7.1%	10.7%	10.7%	7.1%	0.0%		3.4%
2019	VLCC	70.00	69.00	69.00	68.00	71.00	71.00	71.33	
	SUEZ	48.00	50.00	50.00	49.00	49.00	49.00	50.33	
	AFRA	35.00	35.00	35.00	35.00	35.00	37.00	37.42	
	MR	28.00	28.00	28.00	28.00	28.00	29.00	29.00	

VLCC-310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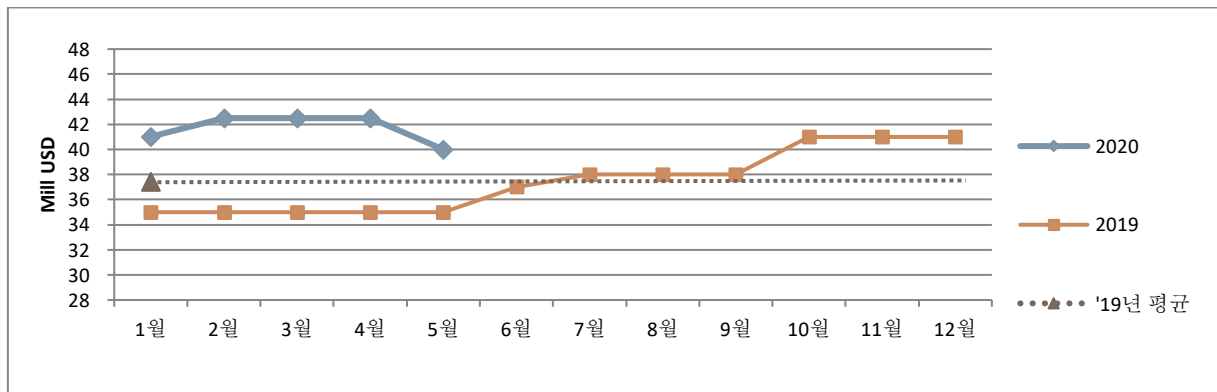


III. TANK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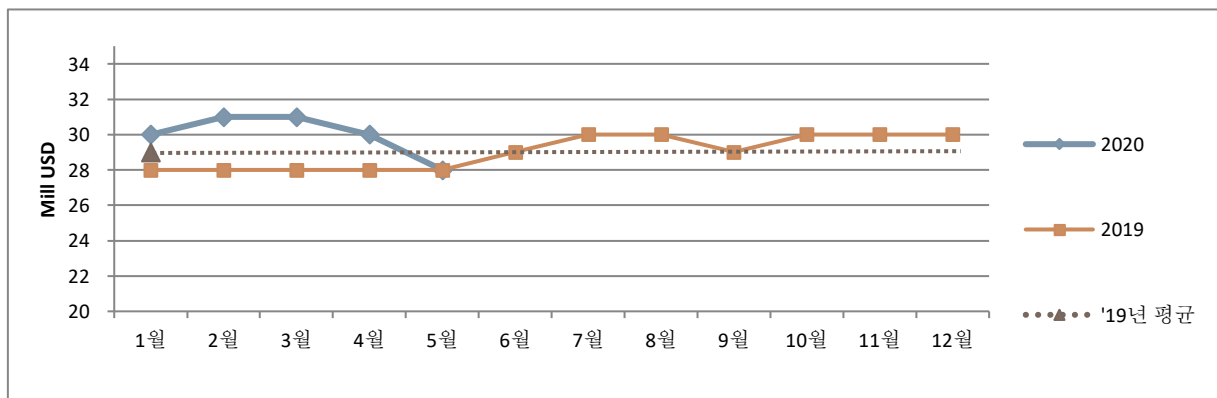
□ SUEZMAX-160K



□ AFRAMAX-105K



□ MR-51K





III. TANKER

IV-1. Tanker Sales Reported

1) TANKER

TYPE	VESSEL	DWT	BLT	YARD	M/E	IMO	PRICE	REMARKS
TANKER	LANDBRIDGE WISDOM	307,894	2020	CHINA	B&W		65	Norwegian buyer (SFL Corp) Incl. 7 yrs BB back to sellers with p.options after 3rd year & p.obligation at the end
TANKER	CHEMTRANS NOVA	73,933	2006	CHINA	B&W		11.25 -11.5	Undisclosed buyer
TANKER	AMAZON GLADIATOR	72,910	2001	KOREA	B&W		9.3	Undisclosed buyer
TANKER	CIELO DI GUANGZHOU	38,877	2006	CHINA	B&W	2&3	8.8	Undisclosed buyer
TANKER	MERSEY SPIRIT (bunkering)	2,366	1996	TURKEY	ALPH A		1	Italian buyer (ANAPO)
OIL /CHEM	TORM MARY	46,349	2002	KOREA	B&W		10	Undisclosed buyer
OIL /CHEM	TORM VITA	46,308	2002	KOREA	B&W		10	

2) CONTAINER, REEFER, ETC

TYPE	VESSEL	DWT	BLT	YARD	M/E	CAPA	UNIT	PRICE	REMARKS
CONT	SEASPAN HARRIER	132,789	2018	CHINA	WART	11923	TEU	91.75	Hong Kong buyer, old sale
CONT	SEASPAN FALCON	132,712	2018	CHINA	WART	11923	TEU	91.75	
CONT	SEASPAN OSPREY	132,672	2017	CHINA	WART	11923	TEU	91.75	
CONT	SEASPAN RAPTOR	132,584	2018	CHINA	WART	11923	TEU	91.75	
CONT	CAPE NATI	23,227	2009	CHINA	B&W	1740	TEU	5	Undisclosed buyer, Bank driven de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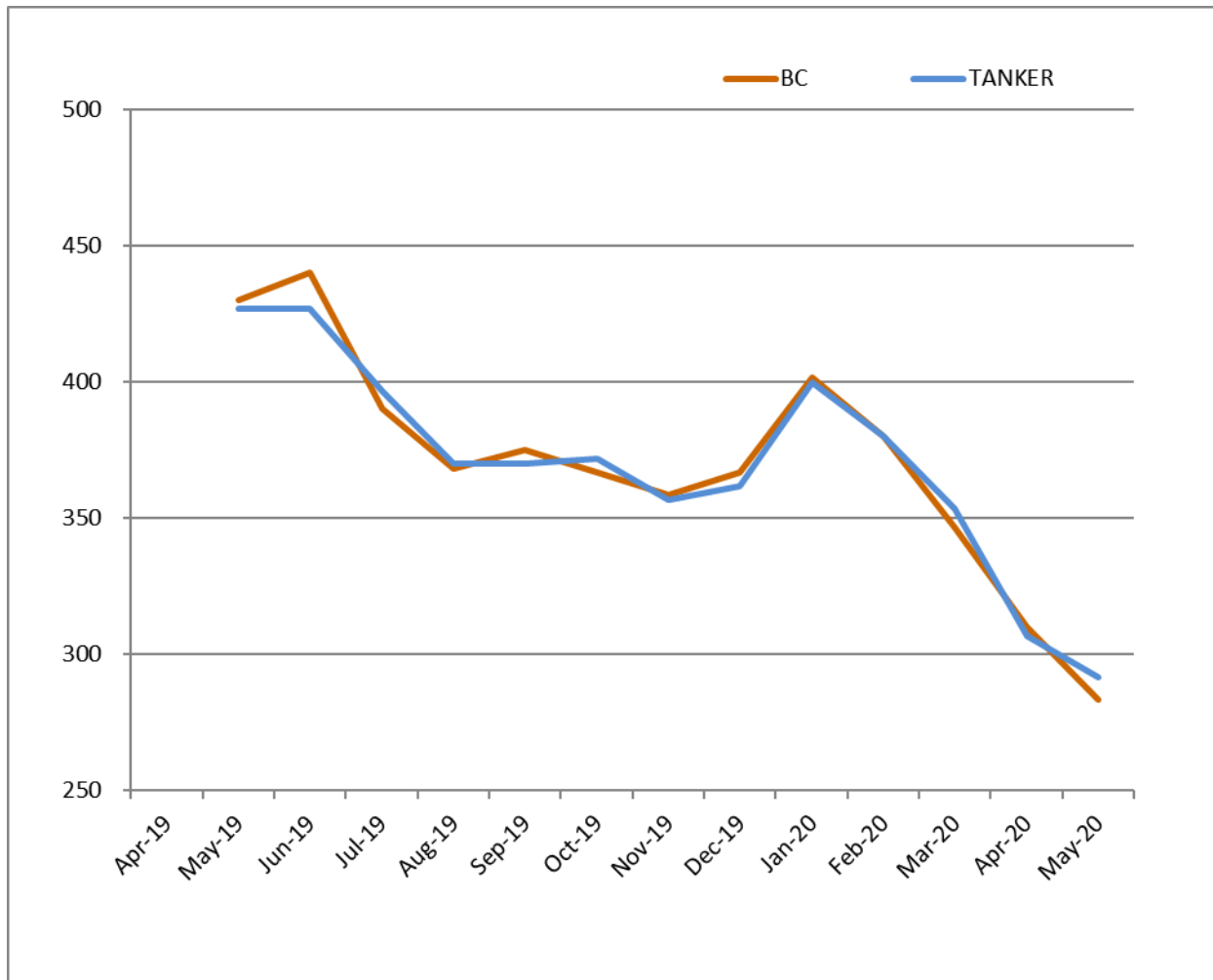


IV. DEMOLITION

1) 선가

해체선가 (US\$/LDT)	2018 평균		2019 평균		2020 평균		2019 년 5 월	2020 년 5 월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증감율 (전월대비)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432.92	18.5%	396.39	-8.4%	346.33	-12.6%	426.67	291.67	-4.9%	-31.6%
BC	440.63	18.8%	398.75	-9.5%	344.33	-13.6%	430.00	283.33	-8.6%	-34.1%

❖ 기준 : 인도해체선시장(USD/LDT), 증감율 (전년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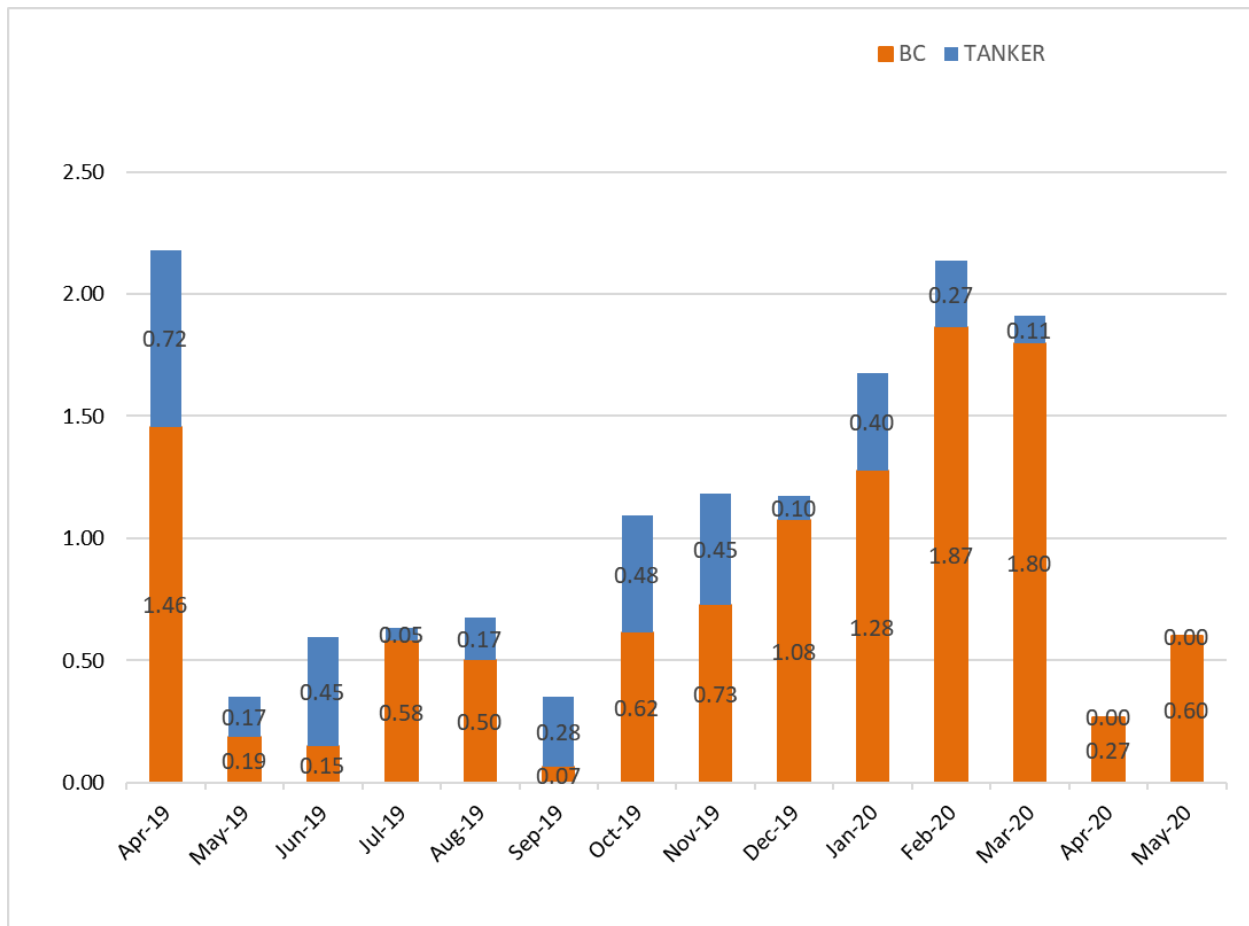


IV. DEMOLITION

2) 해체선누적현황

해체선 총량	2019 년		2020 년 누적			2019 년 5 월		2020 년 5 월				
	Million DWT	No.	Million DWT	누적율 (전년대비)	No.	누적율 (전년대비)	Million DWT	No.	Million DWT	증감율 (전년대비)	No.	증감율 (전년대비)
TANKER	3.54	97	0.78	22.2%	35	36.1%	0.72	10	0.00	-100.0%	0	-100.0%
BC	7.45	116	5.81	78.0%	55	47.4%	1.46	15	0.60	-58.8%	2	-86.7%

3) 해체선총량 (MILLION DWT)





IV. DEMOLITION

V-1. Demolition Sales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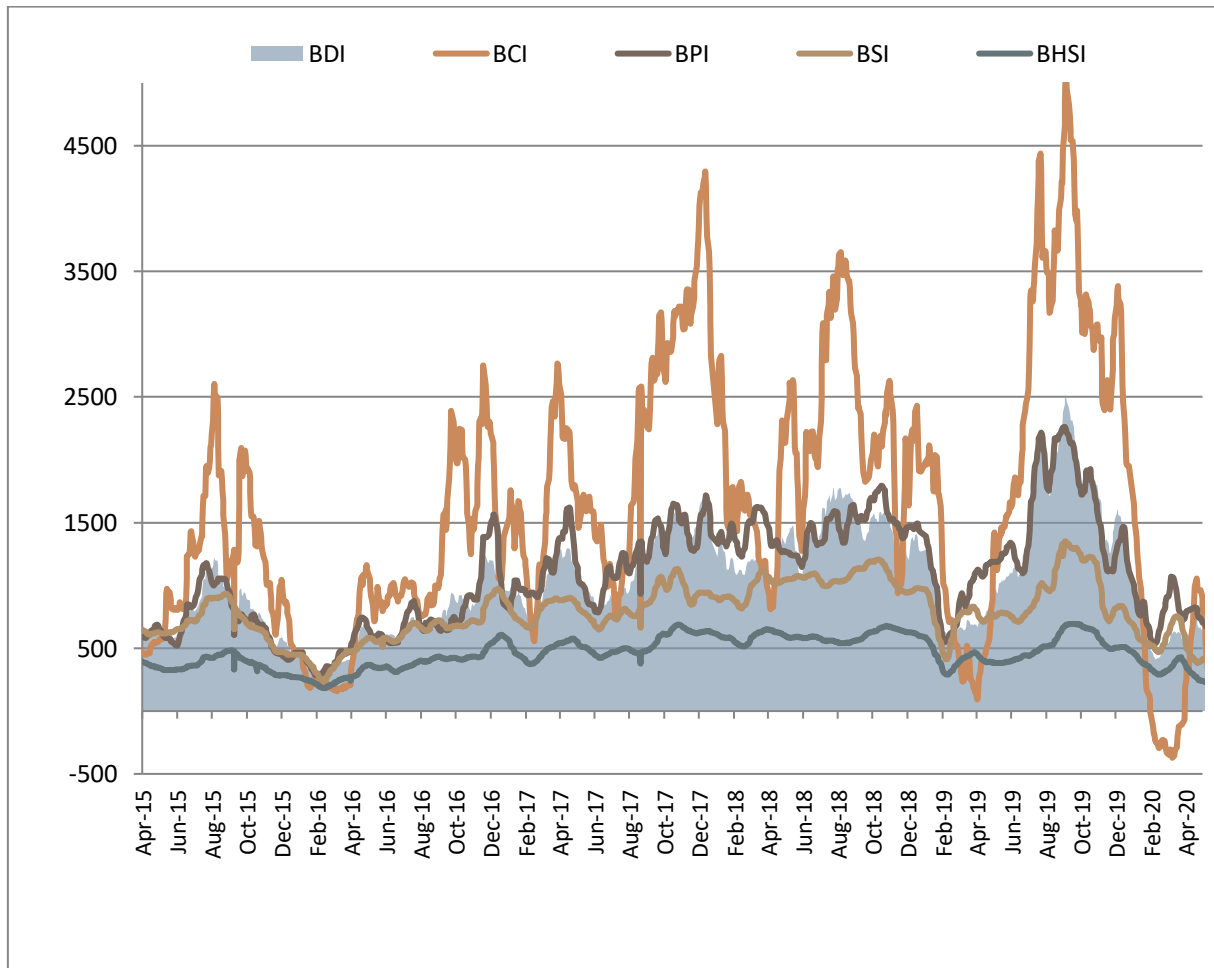
TYPE	VESSEL	DWT	LDT	BLT	YARD	M/E	PRICE (usd/ldt)	REMARKS
CONT	KOKURA	84,900	-	1997	DENM ARK	B&W	330	full sub-conti delivery option



V . KEY INDICATORS

1) Baltic Index

	2020-05-22	2020-05-15	CHANGE	5 Year High	5 Year Low
BDI	498	407	▲91.00	2518	290
BCI	162	26	▲136.00	5043	-372
BPI	635	603	▲32.00	2262	282
BSI	486	450	▲36.00	1351	243
BHSI	249	230	▲19.00	692	183





V . KEY INDICATORS

2) Bunker Price (USD/TON, 전주대비증감)

(USD/Ton, Change)	Singapore		Rotterdam		Houston	
IFO380	216.00	▲36.00	191.50	▲29.50	183.00	▲26.50
MGO	295.00	▲46.00	265.50	▲8.00	296.00	▲44.00
LSMGO	289.00	▲26.50	272.00	▲13.00	-	-
VLSFO	274.00	▲24.00	240.50	▲21.50	249.00	▲22.00

❖ 기준일 : 5 월 22 일 기준

3) Exchange Rate

구분	2020-05-22	2020-05-15	CHANGE
미국 달러	1230.70	1227.90	▲2.80
일본 엔(100)	1143.88	1144.74	▼-0.86
유로	1347.55	1326.62	▲20.93
중국 위안	173.10	172.69	▲0.41

❖ 최초고시, 매매기준율기준

VI. STL NEWS & INFORMATION

[시사상식] 그로서란트 (Grocerant)

식료품점인 그로서리(GROCERY)와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로 다양한 식재료를 판매하고, 그 식재료를 이용한 음식을 맛볼수 있는 신개념의 식문화 공간. "복합식품매장"이라고도 한다.

[출처: 한경 경제용어사전]

[관련기사] 온라인 식품몰 전성시대...마켓컬리 뒤 이을 곳 어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이후 온라인 식품전문 유통업체들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마켓컬리 등 온라인 식품전문 업체들은 물류 시스템과 취급 상품군을 강화해 코로나 19로 생겨난 온라인을 통한 식료품 구매 트렌드를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19일 식품·유통업계에 따르면 신선식품 전문 유통업체 마켓컬리는 코로나 19가 본격적으로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 매출이 전월 대비 25% 증가했다. 3월에도 매출이 전월 대비 19% 증가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매출뿐만 아니라 주문건수도 늘었다. 2월 주문건수는 전월 대비 25%, 3월엔 11% 각각 증가했다.

코로나 19 이후 전반적으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었지만, '집콕족' 증가로 가정에서의 식품 소비는 오히려 늘어났다. 이 때문에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새벽배송의 원조 격인 마켓컬리가 직접적인 수혜를 받았다.

업계에 따르면 마켓컬리는 올해 들어 월 거래액이 1000 억원대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마켓컬리의 후발 주자인 자체 브랜드(PB) 전문 푸드몰 쿠팡마켓은 코로나 19 이후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했다.

지난해 5월 쿠팡마켓을 선보인 쿠팡은 지난 1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3배 증가한 98억 3800만 원을 기록했다. 2014년 하반기 쿠팡 설립 이후 첫 1분기 실적이 발생한 2015년 1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281배나 성장한 수치다. 이 중 93억 원 이상이 쿠팡마켓에서 발생했다. 쿠팡마켓 분기 기준 재구매율은 48%에 달한다.

VI. STL NEWS & INFORMATION

독서 네트워킹 커뮤니티에서 출발한 간편식 전문몰 '윙잇'도 4월 거래액이 13억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증가한 수치이자 윙잇 설립 이래 최대 월 거래액 기록이다. 윙잇은 높은 재구매율을 바탕으로 지난 3월 기준 회계상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

온라인 식품 유통업체들은 코로나 19 이후에도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마켓컬리 운영사인 컬리는 이달 들어 2000억원 규모의 시리즈 E 투자를 유치했다. 이는 컬리 내부적으로도 사상 최대이며, 올해 국내 스타트업이 유치한 투자 중에서도 가장 규모가 크다. 컬리는 이번 투자금을 물류 시스템 강화에 투입할 계획이다. 컬리는 올해 말 기존 물류센터의 2.5배 규모인 김포 물류센터를 개장한다. 투자금은 물류센터 정비 및 시스템 고도화, 인재 영입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윙잇도 이번 흑자전환으로 발생한 영업이익을 재투자해 공격적인 채용에 나선다.

쿠팡은 지난달 말 서울 삼성동 스타필드 코엑스몰 지하 1층에 그로서란트 콘셉트의 쿠팡마켓 프리미엄 매장을 개장했다.

'그로서란트'(GROCERANT)는 식료품점(GROCERY)과 레스토랑(RESTAURANT)의 합성어로, 식재료를 현장에서 구입해 즉석에서 맛볼 수 있는 매장이다. 오프라인에서 쿠팡마켓을 경험한 소비자들이 온라인으로 다시 쿠팡마켓을 이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생각한 전략이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2015년 메르스 이후 전자상거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했듯, 이번 코로나 19로 식품 소비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신생 업체들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식품업체나 유통업체도 온라인 강화에 중점을 두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출처: 이데일리]



VII. CONTACT INFORMATION

STL GLOBAL Co., Ltd.

101-1401, Lotte Castle President, 109, Mapo-daero, Mapo-gu, Seoul, Korea
 Tel: +82-2-776-0840 (Rep.) Fax: +82-2-776-0864
 E-mail: seoul@stlkorea.com
 www.stlkorea.com

| **SALE & PURCHASE**

Neal S.I. Kwon (권순일 상무)
 Senior Director
 Tel. 070-7771-6410
 Mob. 010-9496-0523
 snp@stlkorea.com
 neal@stlkorea.com (Personal)

| **CHARTERING**

Sancho Kim (김현진 이사)
 Director
 Tel. 070-7771-6404
 Mob. 010-5756-9378
 snp@stlkorea.com
 sancho@stlkorea.com(Personal)

| **RESEARCH**

Anna Lee (이혜란 과장)
 Manager
 Tel. 070-7771-6403
 Mob. 010-2258-5561
 snp@stlkorea.com
 anna@stlkorea.com(Personal)

Claire C.W. Ji (지차욱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1
 Mob. 010-6625-9785
 snp@stlkorea.com
 claire@stlkorea.com(Personal)

Mike Hong (홍창목 차장)
 Deputy General Manager
 Tel. 070-7771-6417
 Mob.010-4855-8055
 snp@stlkorea.com
 mikehong@stlkorea.com
 (Personal)

| **AGENCY OPERATION** (오수현 차장 Tel. 070-7771-6402)

| **FERROALLOY LOGISTICS** (안지영 차장 Tel. 070-7771-6405)

| **WAREHOUSE MANAGEMENT** (진정식 과장 Tel. 070-7771-6406)

E-mail. operation@stlkorea.com

에스티엘 지투어 (www.stlgtour.com)
 Tel. 1661-8388 (Rep.) Fax. 02-6499-8388
 E-mail. tour@stlgtour.com

| 기업/일반 단체 (이현성 부장 Tel.070-4800-0153)
 | 항공 예약 (김영하 실장 Tel.070-4800-0151)

전남요트아카데미 (www.stlyacht.com)
 Tel. 061-247-0331 Fax. 061-247-0333
 E-mail. academy@stlyacht.com

| 보트/요트 면허취득 (이진행 실장 Tel.010-2777-4027)